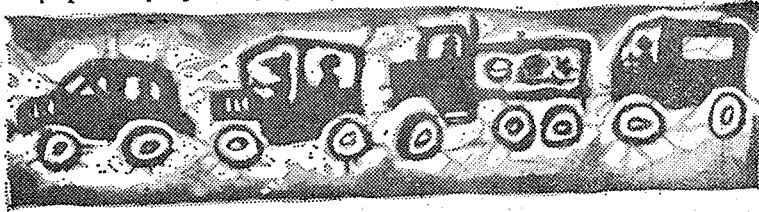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의 주변



現
代
齒
科
技
工
所

具安信 · 甘泳三

우편번호

100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5街 63의 15

(관문벨딩 一五號室)

(三三) 七二一〇 · (23) 7210

保社 새해부터 醫療保護制度시행

2차 診療 지정醫院級도 醫療保護위해 診療體系 地域化

할社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保醫療 保護事業을 전국 49개 國公立病院을 중심으로 55개 診療地區로 區分하여 診療圈을 형성하고 진료 지구내의 國公立病院시설이 불충할 때는 同一地區內의 民間醫療機關을 의료보호病·醫院으로 指定, 진료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확정公告했다.

保社部가 지난 1일 확정한바에의 하면 醫療保護대상자에 대한 1,2차 診療는 진료지구별로 실시하되 다만 市道知事が 교통편의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진료지구 設定時에 미리지정한 지역은 인근진료지구를 活用할 수 있게 했다.

또 진료지구내의 診療體系는 1차 診療를 보건소·보건지소 그리고 市·郡·區단위로 1개이상씩 市長 郡守, 區廳長의 추천을 받아 市道知事が 지정하는 民間醫院이 담당케 하고 2차 診療는 國公立병원 및 지정民間병원 또는 醫院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保健부문 豫算 79%증가

國會保社委중심의 총 규모 5백 27억원

保社部는 77년도 重點施策方向을 ① 의료보호확대 ②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傳染病管理강화 ③ 食·醫藥品관리철저 ④ 생활환경개선 ⑤ 人口對策강화 ⑥ 서민福祉증진에 두고 歲入 59억 4천 5백 10만원, 歲出 5백 27억 2천 6백 78만원 규모로 새해 豫算案을 편성 國會에 제출 國會保社委는 신현확 保社部長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착수

한편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기료 관이 없는 도서, 낙도주민에 대해서는 市道の 病院船, 水産業協同組合 및 赤十字社의 병원선이 1차진료를 담당하고 2차진료대상환자는 지정된 醫療보호병원으로 移送지료토록 體系化했다.

또한 진료지구내의 醫療保護病·醫院지정은 市道판단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게 하고 2차 진료를 담당할 病院이 없을 때는 醫院을 지정하여 2차진료를 담당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醫療保護施設의 지정은 市道知事が 1,2차 진료로區分 지정하되 2차진료기관은 市道立病院을 원칙으로 시설부족시에는 ① 非營利法人개설病院 ② 個人病院 ③ 個人醫院순위로 지정하여 市道知事が 生保法施行令 7조에 의거, 公告토록 했다.

診療費의 지급은 진료후 진료지구내에 있는 市·郡區에 청구 醫療基金에서支給되게 된다.

하여 정책질을 끝내고 小委에서 計數조정을 들어 갔는데 13일까지 豫算案심의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保社部가 國會에 내놓은 77년도 歲入예산은 一般會計 24억 6백만원, 國立醫療院 특별회계 34억 5천 9백 53만원, 國民福祉年金 특별회계 7천 9백 57만원으로서 76년도보다 2.4억 6백 34만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歲出예산會計는 一般會計 4백 92억 2천 1백 97만원, 國立醫療院 특별회계 34억 5천 9백 53만원, 國民福祉年金 특별회계 4천 5백 28만원으로서 前年度에 산보다 1백 21억 7천 9백 91원(30%)이 증액, 計上되었다.

이 歲出예산규모는 보건부문이 3백 31억 9천 3백 만원으로 76년보다 79%가 증액(1백 46억 3천 7백 만원)된데 반해 社會福祉부문에는 1백 95억 3천 4백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가 감소(24억 5천 7백 만원)되었다.

醫院級 대거參與 豫상 醫療保護 1,2차 診療

來年부터 施行되는 정부 醫療保護事業에 醫院級 醫療機關(開業醫)이 醫療保護대상자를 위한 1,2차 診療機關으로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보사부관계관의 展望이다.

醫療보호事業의 대상은 生活무능력자 37만명, 저소득자 1백 73만명, 施設수용자 5만 1천명 등 총 2백 15만 여명인데 이들의 1차 診療機關으로 보건소·보건지소 외에 醫院급 醫療機關을 市郡區 단위로 1개소 이상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2차 診療機關으로도 이미 11개소나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醫院이 醫療保護대상자의 1차 診療機關으로 상당수 지정을 받게 된 것인데 보사부 관계관은 실제적으로는 邑面단위로 1개소씩의 醫院이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며 또한 醫療保護대상患者 대부분이 保健支所 보다는 醫院을 찾아갈 可能性이 많다고 내다봤다.

□ 公衆保健獎學生 齒大 1차選拔서 除外
文教部 全國 14개 醫大에 2백명 推薦示達

文教部는 77학년도 公衆保健獎學生 選拔추천을 전국 14개 醫科大學에 시달했는데 이번 1차選拔에서 齒科大學生은 除外한것으로 알려졌다.

文教部가 保社部 요청에 따라 각 醫大에 시달한 77년도 公衆保健獎 學生 選拔수를 醫大별로 보면 서울 醫大 20명, 고려의대 13명, 이화의대 8명, 경희의대 8명, 연세의대 15명, 중앙의대 8명, 한양의대 14명, 가톨릭의대 13명, 경북의대 22명, 부산의대 16명, 전북의대 13명, 전남의대 19명, 충남의대 15명, 조선의대 15명 등 모두 2백명이다.

문교부는 이 示達에서 77학년도 醫豫科 및 本科 3학년까지의 在學生 중에서 選拔하되, 가급적 上級學年

을 우선적으로 하고 在學生이 배정 인원수에 미달될 경우 신입생중에서 選拔하도록 조치했다.

문교부는 또 新入生중에서 選拔시는 입학시험公告시에 국비장학생 희망여부를 기록날인하는 난을 신설하되 동희망자가 국비장학생으로 選拔되지 못하였을때 취학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자비로 취학가능한지를 명시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재학생選拔시는 성적 및 기타품행을 참작하도록 했다. 그런데 文教部는 이 장학생選拔에서 選拔대상을 上級學年을 우선적으로하고 齒科大學生은 우선 이번 1차選拔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어 齒科界의 주목을 끌고있다.

— 새마을齒科 診療사업 誠金
松風陶齒 30만원, 吉田製作所 16만원

齒協에서는 정부가 시도하는 醫療均霑化施策에 호응하고 이웃돕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므로써 국민속에 봉사하는 齒科醫師像을 심기위해 「새마을齒科診療院」을 설치, 지난 10월 15일 開院式을 거행했습니다.

「새마을齒科診療院」은 새마을사업회로자 생활보호자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齒科무료진료와 口腔保健 계몽등을 실시, 국민의 口腔保健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것으로 齒協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汎齒科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同診療院의 시설 운영에 따른 會員은 물론 관계團體 및 관계業界의 篤志를 구하는 誠金을 募金하고 있습니다. 이 誠金募金에 각별한 配慮를 부탁

합니다.

- ▲松風陶齒製造(株) 取締役社長 松風愼一=30만원
- ▲吉田製作所 取締役社長 山中太一=16만원
- ▲大阪齒大 中本守·京都齊藤實二=4만8천1백원(1백달러)
- ▲大韓女子齒醫學會 會長 金有鳳=3만원
- ▲株式會社 社長 許愼九=에어터빈 1대(30만원상당)
- ▲한국口腔保健協會 會長 吳元善=서류함 캐비넷 1組
- ▲대한小兒齒科學會 會長 梁精康=스틀 1組
- ▲大明齒材 대표 金漢英=벽시계 1개
- ▲金永善齒科醫院長 金永善=라디오 1대
- ▲김희동치과의원장 金熙東=유화 1폭
- ▲永登浦警察署長 劉明斗=온도계 1개
- ▲李學秀(前齒協감사 유경치과의원)=6만원 <累計> 現金 92만8천1백원 機材 6種 11品目 其他 5品目

□ 설탕 有害啓蒙 사업전개
齒協理事會 科學的 근거 마련하고

齒協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설탕이 口腔保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 설탕有害에 대한 계몽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齒協은 설탕有害에 따른 계몽활동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계단체등과 협의 계몽사업을 전개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선 최근 일련의 행사에서 협회임원등에 대한 禮遇가 소홀했음을 지적, 협회 부서별 업무관계·행정사무 절차 및 임원에 대한 예우와 위계질서에 대한 기강확립을 기하기로 하고 모든 儀典절차를 확립키위해 이에따른 문제를 총무·심사이사가 협의진행토록했다.

□ 새마을診療 弘報강화
齒協, 言論기관등에 協助요청

지난 10월 15일 영세민 및 생활보호자의 치과무료진료를 위해 새마을齒科診療院의 개원, 診療를 실시하고 있는 齒協은 同診療院의 개설 취지가 요구호자들에게 주지되지 못한점을 감안, 각 언론·방송기관에 요구호자에 대한 치과무료진료 봉사활동을 널리 알려지도록 지난 1일 협조요청했다.

齒協은 이와 아울러 서울시내 1백 75개동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 영세민등의 口腔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했다.

새마을齒科 診療院 消息
4일부터 冠岳齒醫會서 담당

지난 10월 15일 開원 18일부터 영세민등의 齒科診療에 들에간 새마을齒科診療院은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구강검사 15例 ▲발치 69例 ▲충치 6例 ▲기타 치료 54例등 총 1백 44例의 診療를 실시했다.

永登浦齒醫會 담당으로 11월 3일까지 실시된 진료에선 會員 52명이 출선참여, 사회속에 奉仕하는 齒科 醫療人像을 입증하였으며 11월 4일부터는 冠岳齒醫會로 넘겨져 오는 19일까지 診療를 담당하게 된다.

총 1백 44例 診療
永登浦 會員 52명이 診療에 참여

새마을齒科診療院 진료업무에 참가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최전식 ▲25일 = 김영석 박광배 성광석 손의명 ▲26일 = 김기영 유세청 김홍렬 김광남 ▲27일 = 이왕주 김진주 염경철 김양하 ▲28일 = 김광서 양희일 유제훈 유서운 ▲29일 = 이종덕 이운상 김평일 오종우 ▲30일 = 양신원 김우중 ▲11월 1일 = 안창환 허준구 박승수 ▲2일 = 김주의 황규삼 이학근 ▲3일 = 최영자 이재성 김우룡 이명표(이상 永登浦齒醫會) ▲4일 = 박창희 조성환 김희경 한남수 ▲5일 = 주관철 서상주 남승우 ▲6일 = 윤영윤 김종은(이상 61명)

▲10월 18일 = 이용우 이규철 이병오 유익수 ▲19일 = 권부현 조창홍 신태현 ▲20일 = 유관복 박용연 명노철 신영균 ▲21일 = 박찬성 정박민 이연호 ▲22일 = 김지수 진용환 김현우 김길년 ▲23일 = 이용오

일부 齒科材料 定札制 실시

대상品目 價格등 小委서 調整

齒協 · 機材商協連席회의서 合意 우선 4~5品目

齒協과 齒科機材商協은 齒科機材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는 한편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그동안 논의케 오던 齒科機材의 定札制 실시에 원 칙적인 합의를 보고 우선 일부品目 에 대해 定札制를 실시하고 상호협 의아래 점차 品目을 확대 해가기로 했다.

齒協은 지난달 29일 機材商協과

연석회의를 갖고 치과재료업계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定札制실시 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적으로 시멘트인 프레이스파우 다등 치과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4~5개 品目에 대해 경찰제를 실시 키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小 委員會(齒協 許妍旭자제이사 · 機材

協 朴陽淳총무이사)를 구성, 소의 원회서 대상品目價格등을 조정하여 차기연석회의에 상정결정키로했다.

또한 이자리에선 保社部가 레진 齒의 金수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 國산화장려책에 따라 國산레 진치사용이 바람직하지만 外國産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을 지 적, 가격인하조정을 연구키로했다.

이밖에 品費재료 파잉수입제한 况, 수입제한品目에 대한 대책, 國 산품생산 현황과약등을 양협회가 상호조사하여 치과기재공급에 원활 을 기하기로 했다.

齒醫 國試 來年 1월 10일
保研院公告醫療技士는 2월10일實施

제29회 齒科醫師 國家시험이 내 년 1월 10일 고려대학교에서 시행 된다.

國立保健研究院이 발표한 77년도 國家시험시행공고에 의하면 응시자 격은 의료법 제 5조 각호에 규정된 有자격자로 77년도 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등록이 확인된자에 한해 합격을 인정하며 시험과목은 의료 법시행규칙 제 8조1항에 규정된 해 당종별과목으로 주 · 객관식을 병행 출제한다.

원서교부및 접수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험료교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이다.

한편 제 4회 醫療技士(치과기공 사 · 치과위생사등) 國試 1차시험은 내년 2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2차 시험은 내년 3월 11일 고려대병설 의학교술초급대학(성북구 정능동소 계)에서 실시하는데 치과위생사의 실기시험은 연세치대에서 실시한 다.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의료기사 법 제 4조1항의 규정된 有자격자로

시험과목은 의로기사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규정된 과목으로 내년 1월 30일~2월 3일 원서교부 및 접수, 내년 2월 8일~12일 수험표교부를 한다.

保健院考試당국이 발표한 77년

각종國試이 일정은 다음과 같다.

▲醫師 77년 1월 17일 ▲齒科醫師 및 漢醫師=77년 1월 10일 ▲看護員=76년 12월 20일 ▲藥師=77년 1월 28일 ▲의로기사=1차(77년 2월 16일) 2차(77년 3월 11일)

□ 서울市內齒科醫院근무 看護補助員補修教育
서울市齒科醫師會 실시

서울齒醫會는 11월중에 서울市내 各齒科醫院에 근무하고 있는 看護補助員에 補修教育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齒醫會 學術部사업의 일환으

로 看護補助員의 資質向上을 위해 전개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年례사업으로 실시되는데 현재 이들 간호보조원의 교육을 위해 교재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86년도 제10차 亞太齒科會議 韓國開催 의사표명
自由中國 資格상실 除名

지난 9월 25일부터 1주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64차 FDI총회 APRO「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대표 李學秀씨는 86년도 제 10차 APDF (아시아太平洋齒科會議)회의의 한국개회사를 표명, 내년 2월 「마닐라」회의서 정식제안하여 80년 말레이어회의서 확정키로 제의했다.

이번 제64차 FDI총회에선 부회장에 「J 자르딘」(佛)씨가 선출됐는데 日本대표는 「후사야마」씨가 부

회장에서 이사로 된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내년에 다시 부회장으로 선출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차총회후 개최지역으로 80년(68차)「후랑크푸르트」 81년(69차)「리오네자자이로」 83년(71차) 日本 東京으로 결정하고 의장에 「C.H. 윌리엄스」(美) 범틀고문에 「M. 피라드」(벨지움) 고문에 「T. 후사야마」(日) 「C.R. 뉴비리」(濠) 「C.G 와스톤」(美)씨등이 선출됐다.

한편 9월 30일 「그리스헨톤호텔」

이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 의 주변

에서 열린 APRO 「비즈니스 미팅」에선 필립핀대표로부터 내년 2월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 7차 APDF 및 APRO회의의 준비보고서를 받았는데 이회의에선 Students dental congress를 동시에 개최키로 하고 통용어는 英語로하되 日本語를 병용키로 했다.

또한 이회의에선 APDF회의를 80년 말레이어에 이어 83년에는 FDI총회와 동시에 東京에서 개최키로 日本대표가 확인 했으며 한국대표 李學秀씨는 86년회의의 한국개회 의사를 표명 각국대표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FDI에서 自由中國이 除名됨에 따라 APRO에선 자동제명됐으나 APDF에서의 문제가 日本대표에 의해 제기되므로 포괄결과 한국만 기권, 절대다수로가결 회일 국자격상실로 除名이 결정됐다.

— 10억募金에 最善다짐
市道支部長회의서 懸案문제등 協議

齒協은 지난달 15일 제 2회 전국市道支部長회의를 갖고 10억基金募金에 대한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강조, 우선 급년도분 회원당 1만원씩을 모금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齒協임원진과 전국 13개 支部長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그간 協會운영 전반에걸친 현황을 보고, 醫療保險개정에 따른 문제등 당면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齒協은 ① 의로부조리자제정화운동의 적극참여 ② 불우아동 결연 사업 참여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76년도 회비납부율이 55%로 저조함을 감안, 미납회비자명단 제출을 조속한 시일내 하도록 시달 했다.



◇ 15일 齒協회관에서 열린 급년도 제 2회 市道支部長회의.

회장에 徐廷勳教授

矯正學會, 총회·學術大會 개최



회장 서정훈 교수

대한
齒科矯
正學會
는 지
난22일
성모병
원에서
總會및
學術大

會를 가졌다.

이날 總會 임원개선에선 회장에 徐廷勳씨 부회장에 金一奉, 정인섭씨 감사에 金讚淑·李준浩씨등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학술대회에서는 「乳齒列期 兒童의 두부방사선계측학적 연구」(서울大學院·李炳泰)등 모두 10개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1백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

口腔保健에 對한 認識 높아져

포스타·글짓기 응모急增 展市場에 많은 市民모여



오원선 회장

일반
국민및
아동들
의 구
강위생
에 대
한 인
식이날
로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구강위생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구강보건협회(회장 오원선)가 해마다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포스타및 글짓기 현상모집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3천9백여편이나 응모하여 지난

새마을齒科醫療院開院을 祝
賀해 주신분

◇화환 ▲대한中外製藥대표이사 李宗鎬

◇화분 ▲한독약품 대표이사 金信權 ▲미드웨스트 韓國支社 대표 金영국 ▲대한齒科機材商協會 회장 朴鍾允 ▲忠南齒醫會 회장 金英鎬

▲公職齒醫會 회장 劉東洙 ▲대한齒科기공사협회 회장 金聖培 ▲서울市醫師會 회장 金在油 ▲대한漢醫師協會 회장 吳昇煥 ▲서울齒科기공사회 회장 全奎昊

◇축전 草日本機材商協會 회장 도시오나카오 ▲대한看護協會 회장 田山草 ▲삼산치과의원장 차대식

口腔 保健글짓기

포스타 施賞式 30일 YMCA서

한국구강보건협회는 전국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을 위한 글짓기 포스타모집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오는 30일 종로 2가 「YMCA」강당에서 갖기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특선및 입상자에게는 문교부장관상장과 보사부장관상장이 주어지며 각각 상금도 받게된다.

齒科技工界에 새로운
不條理

技工所有資格者 고용기피

치과기공소에서 유자격 기공사의 고용기피로 취직의 길이 막힌 기공사들이 무인정 기공소를 개설, 기공료 「덤핑」부정치과의료업자와 거래등이 날로 늘어나 치과기공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인정기공소의 경우 유자격자는 소장 한사람이거나 2~3명을 더 두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무자격자를 고용,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도 직장을 구할수 없고 기공소를 개설하려 하여도 TO제에 묶여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인정 기공소를 개설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기공소에서 자격증 소지자 보다 무자격자를 더 많이쓰고 있는 이유는 유자격자에게 응분의 보수를 주고 고용할 경우 기공소 운영이 어렵기때문에 임금이 싼 무자격자를 고용하게되며 또 요즘 초급대학까지 나와 자격증을 취득한 신진들은 이론면으로는 좋으나

■ 各市道消息 ■

■ 全北齒科醫師會

□ 제18회 구강의과학술대회를 전 북전주시에서 개최하였음

전주시 상공회의소 5층회의실에서 지방에서는 볼수없었던 10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 되었으며 거리거리에서는 환영의 푸란카—드까지 나부겨 있어 참석 회원의 호뜻한 감정이 었음.

1. 9시 30~12시 정각까지 강연회가 있었고

2. 12시에서 30분까지

총회에 들어갔는데 전북북사국장 이 대독한 전북지사의 환영사가 있었고 윤기병, 홍준표, 리병윤의 공로에 대한 감사장수여가 있었고 경과보고, 예산결산심의가 있은후 마쳤다.

3. 12시 30분~1시 30분까지 점심식사가 아담하게 마련된 가나안 식당에서 있었고

4. 오후에서 침묵대회로 들어갔다.

△※콜푸대회가 이리 광봉클럽에서 회원 8명(이춘근, 민병일, 홍준표, 이열히 남기덕 선생등)

△※테니스대회

약 40명의 회원이 덕진호반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호반코트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전북치과의사회에서 마련한 기념품도 푸질한 선사가 있었다.

1등 중치소소장조

준우승 남일우 (조)

■ 釜山直轄市

□ 齒科機材 공동구입 알선

10월 12~16일 본會 기제위원회는 (기제이사 조영준) 아래의 齒科 機材를 공동구입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상자와 협의하여 공동 구입을 알선할 계획에 있다.

10월分 공동 구입 기재목록:

리도카인(미국 그레합사제)	300통
알지메이(미국 랭사제)	269포
트파우다	
하이소프트(일본 구수금속제)	301장
트 S.P.	
세 멘 트(미국 록손사제)	34박스
핀 셋 트(서독제)	134개
엑 스프(미국제)	50개
로 라	

실제 기공기술은 오히려 어려서부터 기공실에서 기술을 익힌 무자격자만도 못하기 때문에 기공소를 운영하는 소장으로 박서는 임금이 싸고 일잘하는 무자격자를 환영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당국은 이같은 기공계의 부조리를 파악 기공소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12월 10일 학술대회 개최

大齒技協, 全國技工所代表者 總會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金성배)는 오는 12월 10일 서울치대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중에는 학술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전국 기공소대표자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업자 총회

에서 선출된 업자친목회 회장은 자동적으로 협회 부회장직을 맡게되고 기공실무이사도 1명 선출하게 된다.

이로써 기공소 업자회에서 치과기공사 협회 임원 2명이 뽑히게 된다고 한다.

□ 齒科器材商協會 定期任員會

大韓齒科器材商協會는 지난 11월 6日 朴鍾允會長 主宰로 任員會를 開催하고 다음과 같은 議案을 審議했다.

1. 協會 運營秩序 確立에 關한件

가) 協會名稱中 “器材”와 “機材”를 混用한바 있었으나 今後는 大韓齒科器材商協會로 “器材”를 還元시켜 呼稱 使用할 것을 可決

나) 會計年度를 定款대로 復活시켜 10月 1日부터 翌年 9月 30日로 할것을 可決

다) 月例懇談會와 함께 開催하던 任員會를 分離기로 可決하고, 月例懇談會에서는 當面問題를 討議하거나 相議하되 議決行爲는 任員會에 一任키로 했음

2. 正札制에 關한 件

지난 10月 29日 開催된 齒協機材委員會 本協會와의 連席會議에서

舉論되었다고 해서 無條件 이에 追從하는 것이 아니라 齒科器材의 流通秩序를 바로잡고 우리 會員들의 共同利益을 爲해서 適正한 利潤을 加算한 “正札制”는 바람직한 일이므로 爲先 한品目이나 두品目이라도 正札制를 實施해보기로 可決했다. 또한 齒協共濟會 納品에 對하여 再考해 줄 것을 要請키로 했음

3. 會員間的 親睦과福利增進의件

近間 會員間에 自己만을 爲한 一方의 行爲로서 相對方에게 被害를 주는 事例가 있고, 또한 自己 個人만을 爲한 投賣行爲가 있어 大多數의 會員에게 被害를 주는 事例가 있다는데 이는 一時的 自己滿足은 있을지라도 永遠한 共同利益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善意의 販賣競争은 할 수 있되 會員間的 親睦과福利에 違背되는 行爲는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朴會長이 強調했음

□ 日本 門司. 齒科 醫師會
집행부 本會 방문

10月 11日 日本國 門司齒科 醫師會 會長 山本映太은 각 이사를 대동코 本會를 방문하여 양국 齒科醫師會間에 학술적인 의견 교환과 우호 결연등 광범위하게 환담하였으며, 한편 이날 本會를 대표하여 金沆佑 會長등 本會 집행부에서는 소찬을 마련하여 더욱 뜻깊게 하였다.

△ 보수교육

10月 30日 下午7時~11時(4시간)

76년도 제 3차 회월 보수교육을 신진 예식장에서 개최하여 회원 70명이 참석하여 수강하였다.

이날 연계와 연사는

CEKA-Anchor Techiaue에 대하여 (아타치멘트)

변도엽 선생 Mundy 선생

찬조하신분 동아계약 100,000원

11月中 本會 行事

11月 초순 불우아동 양육비 전달 및 무료진료 실시

11月中 8日間 아래와 같이 학술연수강좌 개최

VTR(뷰디오)연수 강좌개회

1. 상기전 아래와 같이 11월중 V.T.R.(뷰디오)연수강좌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매일 보수교육 1시간을 인정합니다.

아 래

장소: 부산치과병원 V.T.R. 강의실
시간: 매일아침 7:30~8:30

11월 2일: 치주 요법, 잠깐고정법 영구고정법

3일: 치주요법, 지각과민증의 배책, 치주농양의 처치

9일: 새로운 주조근관 제작법에 대하여

10일: 새로운 주조근관 (F.G.P 테크닉)

16일: 부분 의지에 대하여

17일: 부분 의지에 대하여

25일: 근관 치료법 충진에 대하여 (포인트충진법)

24일: " (호제 충진법)

■ 慶尙北道 支部

경북치과 의사사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대구시 금호관광호텔에서 다수회원 참석리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학술대회를 마친후 카텔파티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달 선생 <대구파티마병원 치과과장>: 口腔醫學의 問題點

<口腔醫學의 醫原性 疾患>

서창환 선생 <경대의대 전임강사>: 口腔外科의 問題點

<口腔外科의 醫原性 疾患>

서진관 박사 <대구동산병원 치과과장>: 審美的 補綴에 關한 問題點

<齒科補綴의 醫原性疾患>

최영수 선생 <대구경북치과의원장>: 齒科矯正에 關한 問題點

<齒科 矯正治療의 醫原性 疾患>

조옥만 선생 <대구조옥만치과의원장>

■ 京畿道 支部

△ 인천치과의사회에서는 지난 10.27 인천시내 가톨릭회관 회의실에서 학술집담회를 갖은바 있는데 매일 개최되는 이 집담회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자: 김용운 치과의원원장

연제: 국소마치에 대하여

△연자: 김건일 성모자에병원 치과과장

연제: F.K.O. 및 L.L테크닉에 대하여

△인천치과의사회 제 2권을 발행키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모집 방안, 편집방향 등을 숙의한바 있다. 그런데 창간호(1976년 3월)를 발행했을 당시는 전회원이 모여 발간 기념회를 가진바 있는데 이번 제 2권은 1977년 1월중 발간할예정이다.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우광근, 임광수, 윤명국, 이종호, 이정호

△인천치과의사회 제 1회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7일 한국은행연수원에서 열린바 있는데 회원및 회원가족이 모인 이 체육회에서는 축구, 부인및 어린이경기, Fo-Ba게임(발야구)등 다채로운 경기를 갖었으며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 忠北齒科醫師會

□ 無料診療

淸州市 齒科醫師會에서는 1976. 10. 21日 淸주시 淸岩洞 106-2 惠能保育院을 訪問하여 淸州市齒科醫師會長 鄭滿泳外 7名醫師가 院生 60名에 對한 無料治療를 實施하였다.

治療內釋은

拔牙 40個 30名

神經治療 10名

其他相談 30名

△不愛兒童등기 運動展開

忠州市 齒科醫師會에서는 會長 安乘官氏(現普生齒科醫院長)을 爲始하여 會員 7名이 一致團結하여 每月 月例會를 開催하여 當面問題 討議는 勿論 지난 11月부터 不愛兒童 2名과 結緣 1人當 5,000원 式 每月 10,000式 支拂하고 있음

△每月 9日 午後 6時에 淸州市 齒科醫師會(會員 11名) 月例會를 淸州市 淸岩洞 2가 水晶食堂에서 開催하고 있다. 이 月例會에서는 各會員間에 建設的 意見討議와 各自의 陰路事項은 勿論 齒科界에 關한 諸般事項을 討議 決定하였는데 會費는 每人當 5,000원이며 其中에서 10,000式을 市齒會主管下에 積立하고 이는 現實이며 本月例會는 2年間 繼續中에 있음